

물가안정기준 '소비자물가'로 바뀌

韓銀 "실생활과 동떨어진 '근원물가' 폐기"... 내년부터 전환 추진

근원물가 기준으로 세워졌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와 수준, 기간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근원물가에서는 제외되는 유가나 농수산물 가격이 소비생활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데다 최근 근원물가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밀도는 등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는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상승률이 낮

은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근원물가 기준 2.5~3.5%였으며, 최근 근원물가는 지난해 연간 2.3%, 올해 1·4분기 1.6%, 2·4분기 1.9%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 정책협의 사항 중 하나로 98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한은은 당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근원물가 기준을 바꿨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소비자물가 기준이었던 1998년에 8~10%, 1999년에 2~4%였으며 근원물가 기준이었던 2000년엔 1.5~3.5%, 2001~2003년엔 2~4%였다.

각국의 사례를 봐도 제도운영의 경험 이 축적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

이 지속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90년대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24개 국가 중 근원물가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2000년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뿐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가 고성장 고물가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저성장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가가 국민생활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어떤 기준지표와 수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할 지 몇 가지 안을 놓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은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에 상정돼 통과돼야 확정된다.

앞서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의 물가 안정기조를 감안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것을 말한다. 계절적 요인이나 대외 요인을 제거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시중의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은이 이를 근거로 통화정책을 펴는 데 따라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린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기업 기 꺾어 경제 어려워졌다"

민간연구소 '경기침체' 진단

한국 경제가 국민총생산의 절반 규모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과 60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스위스 국제경제개발대학원 2005년 평가)을 갖추고도 현재 '파잉규제'와 '징벌주의'라는 찬바람에 잔뜩 움츠러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또 올해들어 풀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며 이를 포함한 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87년 이후 한국 경제 20년을 조망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외환위기 수습 과정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경제적 활력과 역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 역시 "2003년 이후 실시된 순환출자 억제제를 통한 소유-지배권 괴리 해소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기업 부채비율을 100%이하로까지 유도한 결과 보수적 투자와 수비적 경영이 자리잡게됐다"며 출자총제를 비판했다.

또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현재 104%로 일본(145%), 미국(141%) 등을 크게 밀도는 사실을 소개하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 정책이 한국기업의 도전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성태 韓銀 총재 "물가 좋은 시절 끝났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불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내수경기 부양론'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올해말이나 내년초 물가상승률이 3%에 이를 수 있다"며 "물가는 이제 좋은 시절 끝나고 어려운 시절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효과에 의한 저물가가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원화까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쇄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두바이 유가가 68달러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우선 향후 경기에 대한 진단부터 달랐다. 하락세 반전을 예상하

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율 4%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와 관련하여도 "지금까지 미국 소비수요로 촉발된 경기확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의 조건이 국내·외적으로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여당과 재경부 일각에서 풀금리 추가인상이 경기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풀금리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풀금리는 금통위원들이 협의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해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마이웨딩 페어 '마이웨딩페어' 개최를 하루 앞둔 12일 학여울 무역전시장에서 신랑·신부 차림의 모델들이 과일을 주제로 한 이색 결혼식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폐손상 절반 "불에 타서" 韓銀, 올 상반기 4억4,810만원 교환

화재나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바뀐 액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5천만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늘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지폐는 총 4억4천81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8% 줄었으나 건수는 9.4%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에 탄 손상지폐의 교환액은 2억4천710만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폐소손 사례로는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8천610만원(비중 19.2%), 장관밀 놀림 6천290만원(14.0%), 세탁에 의한 탈색 1천300만원(2.9%), 칼질

금호타이어, 중국 4공장 추진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중국 난징·텐진·창춘지역 승용차용(PCR·Passenger Car Radial)타이어 공장에 이어 네번째로 난징지역에 트럭버스용(TBR·Truck Bus Radial)타이어 공장건설을 추진한다.

금호타이어는 12일 중국 난징시 진링호텔에서 장홍운(蔣宏坤)난징시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南京高新技術產業開發區)관계자와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기존 난징 승용차용(PCR)타이어 공장에서 약 27km 떨어진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 9만여평 부지에 약 2억 2천만불을 투자, 2007년 1월 착공해 2008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

이다. 생산능력은 연간 70만(개)으로 향후 연간 140만(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오세철 사장은 "중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호타이어는 향후 중국 내 트럭버스용 타이어 시장의 성장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교체용 트럭버스용(TBR)타이어 시장 관제, 장작용 타이어(OE)납품 등의 전략으로 중국 트럭버스용 타이어 시장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올 들어 중국내 공장들과 한국내 3개 공장(광주·곡성·평택), 지난 3월 MOU를 체결한 베트남 공장에서 약 27km 떨어진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 9만여평 부지에 약 2억 2천만불을 투자, 2007년 1월 착공해 2008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취업자수 증가폭 2개월 연속 하락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달에 이어 20만명대에 머물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천350만1천명으로 1년전보다 1.1%, 25만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인 5월 28만6천명에 그쳤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달에 더 낮아진 것이다.

올들어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39만3천명, 2월 32만7천명, 3월 27

만2천명, 4월 30만7천명 등으로 상반기 중 3월, 5월, 6월 등 절반의 기간에는 30만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성별 취업자수 증가폭을 보면 남자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만명(0.4%)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여자는 20만6천명(2.1%)이 늘었다.

취업자수는 30대 이상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었으나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연합뉴스

日, 제로금리 끝... 내일 금리인상 한국에 미칠 여파는

자금 유출, 주식시장 악영향 우려

풀금리에 영향 미미...엔화대출 부담 늘어

오는 14일 일본은행(BOJ)이 6년만에 제로금리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식·부동산시장 영향 예상=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 캐리 자금을 자국으로 소환하면서 우선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일본에서 제로 금리로 조달해 전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도 엔화 대출을 받은 한국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용에 의해 움직인다.

이 자금은 주식·부동산 등 한국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반대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 풀금리에 큰 영향 없을 듯=일본은 재정적자 규모가 워낙 커 일본 정부측의 금리인상을 견제하는 압력이 만만찮다.

한국에 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이 추가로 금리를 연쇄적으로 올리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이번 금리인상이 한국의 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금리인상 자체가 통화정책에 큰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오히려 엔화 강세에 따른 원화 동반 강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형편이다. 이러한 엔화강세의 영향이 한국의 수출·수입에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엔화대출 위험관리 나서야= 금리 인상으로 엔화 자금을 쓰는 가격이 비싸지면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채무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엔화대출은 국내 은행들이 일본의 저리 자금을 받아 기업들에 연 2~3% 저금리로 대출해주던 자금이다. 금리가 싼 데다 환차익까지 가능해 일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엔화대출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말과 올초에는 환차익으로 엔화가 원화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면 환차손까지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올 초부터 엔화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해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액신불자 50만명 구제한다

500만원이하 최고 50% 빚 탕감

한 금융기관에만 500만원이하의 빚을 지고있는 소액 신용불량자 50만명의 부채가 대폭 감면된다. 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들에게는 빚 탕감비율이 최고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에 빚 갚지 못해 신용회복 추가 지원책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은행권 14만명

을 포함해 50만명의 소액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단독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게 최고 90%까지 원리금을 깎아주기 시작했다. 1년이하 연체자는 원리금의 60%를 탕감받게 되고 2년이하 연체자와 3년이하 연체자는 각각 원리금의 30%와 20%만 내면된다.

국민은행도 단독 채무자중 실요성을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한국스리얼(주)	공무원/품질관리부/생산부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1-330-7012
OA나라	경리, 회계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7/14	062-224-6074
인원산업(주)	관리직 남/녀 사원(관리업무/경리,총무)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14	062-655-4840
대한생명보험(주)	금융전문가 2기 여사원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7/15	011-9620-6805
보현산업(주)	자재관리, 납품, 영업관리, 출퇴근운영기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956-9600
(주)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8	062-601-7203
주일평가공 본사	난방기/A/S기사 및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0	062-954-2204
김담종합건설(주)	경리 여사원(건설회사 경력자우대)	고졸/경력1년	1,000~1,200	07/20	062-267-8776
제이앤비컨설팅	(금호생명) 콜센터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2	062-512-5864
동원건설(주)	전기 공무/토목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22	062-606-6553
데일리스파이스광주점	양식당 조리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611-889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